

## Giovanni Morgagni (1682-1771)

( Ubi est morbis ; 병은 어디에 있는가? )

奇昌德

치의학용어심의 위원장

기창덕 치과의원장

Ubi est morbis ; 병은 어디에 있는가? 모든 의사는 누구나 대답해야 하는 물음이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말하기 전에 Giovanni Morgagni가 <해부에 의해 분명한 병의 자리와 원인; The Seats and Causes of Disease Investigated by Anatomy(병의 자리와 원인; *De sedibus*)>를 출판하고 100년이 지난 1874년 Glasgow병리, 임상학회 회장 W. T. Gairdner가 Scottish medicine의 지도자들 앞에서 연설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근대에 뛰어난 사람들이나 또는 현대의 사람들까지도 새로운 수단이나 기기에 의해 연구하고, 생리학이나 미시적(微視的)해부학의 새로운 발견의 홍수와 유기화학의 한가운데에 있지만 그 누구나가 Morgagni의 연구와 방법의 계승자이며 정당한 후계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과 정신이야말로 근대적 의식을 가진 의사를 근본적으로 특징있게 하고·Moriere가 신랄하게 풍자적으로 묘사한 의사에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는 병리해부학의 전문가만이 아니고 금세기와 전세기의 뛰어난 의사의 거의 전원도 Morgagni의 정당한 후계자이며 그의 연구방법의 계승자라고 단언합니다. 진단이 정확하게 내려지고 통계적 추론이 가능해진 것은 Morgagni의 연구에서 대부분이 유도된 제 원리를 많은 사람들이 엄격히 응용한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병은 어디에 있는가?’의 대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Morgagni가 제시했다고 강조하였다. 즉 그의 방법은 과학적으로 반복과 재현이 가능한 연구에 따르는 관찰, 가설, 실험, 데이터의 기록 및 주의 깊은 추론을 하는 것이며 그리고 여기에는 4개의 주축이 있어 임상, 병리학, 실험 및 기록 등이 뒷받침을 한다고 하면서 그는 700여에 이르는 증례를 하나하나 임상적 경과를 자세히 그리고 명확하게 보고하고 그 뒤에 부검에 의한 병리적 소견을 기재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 실험을 하고 연구제목에 관한 현존 문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수업중 연습문제의 모범적 형식으로 후세의 의사에 의해 임상병리conference(CPC)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2세기반이 지난 현재도 CPC는 특히 유효한 의학교육의 하나로 ‘병은 어디에 있는가?’의 확실한 대답을 찾는 방법이라고 W. T. Gairdner는 말하면서 Giovanni Morgagni의 은혜중 하나라고 강조하였다.

Giovanni Morgagni는 1682년 2월 25일 북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Forli에서 태어나 16세 때에 약 35마일 떨어진 Bologna에서 의학과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Malpighi의 제자 대 해부학자인 Antonio Maria Valsalva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1701년 19세에 우등으로 학위를 받고 Valsalva의 제자가 되어 1709년까지 졸업 후 연수를 받고 고향인 Forli로 돌아와 개업을 시작하였다. 큰 키에 믿음직하고 미남에 호인형의 인품 그리고 우수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 젊음에도 불구하고 개업에 성공한 편이여서 상담자로서 인기가 높았다. 이 무렵 마을의 명문집 규수 Paola Verzeri와 결혼하였다. Giovanni Morgagni는 12명의 딸과 3명의 자식을 가졌는데 딸 8명은 수녀가 되고 자식 1명도 신부가 되었다.

Giovanni Morgagni는 1711년 Padua대학에 초빙되어 이론의학의 제 2교수가 되었으나 4년 후인 34세 때에는 이 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해부학의 교수로 임명되어 Vesalius, Fallopius, Fabricius와 Spigelius 등의 후계자가 되었다. 이로부터 수년이 지나는 동안에 Morgagni는 Europe의 뛰어난 해부학자로서 명성을 확립하게 되고, 이때부터 세계의 학자들이 그를 찾아와 가르침을 구하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외국에서 Morgagni를 회원으로 추대한 학회만도 London의 왕립학회, Paris의 왕립과학학회, Berlin의

왕립학회, Petersburg의 왕립학회 등이 있었다.

여기에 역사적으로 기록하고자 하는 Morgagni의 인물상은 과학자로서가 아니라 임상의로서의 그의 자아상과 그가 될 수 있는 대로 주의깊게 환자를 보게 된 동기에 있어서 치료는 구극의 목표로 한 점 등에 있다. 즉 임상의학에 대한 강한 관심과 생리학적 실험의 계속에 의해 그는 병의 여러 현상을 합리적으로 관찰하고 가능한 설명을 추구함과 같이 명확한 실체로서 병의 과정을 분류, 설명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과학자로서가 아니라 임상의로서의 그의 자아상과 그가 될 수 있는  
대로 주의깊게 환자를 보게 된 동기에 있어서  
치료는 구극의 목표로 한 점 등에 있다.**

이러한 Morgagni의 진리추구의 결과는 의학 발전에 매우 중요한 전기를 만드는 기념비적인 위업의 하나로 간주하게 되었다. 결정적인 방향전환을 이끌어 낸 명저의 대부분과 같이 그의 저서의 표제도 그의 전갈을 요약한 것이었다. 즉 “해부에 의해 분명해진 병의 자리와 원인에 대하여(병의 자리와 원인) : The Seats and Causes of Disease Investigated by Anatomy(*De sedibus*)”라는 것이다.

Morgagni가 동료 의사들에게 말한 것에 의하면 ‘병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흐름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고 시체(사체) 그 자체를 해부하는 것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해부가 진단의 열쇠이고 Hippocrates학파에 의해 처음 배운 의사의 오감(五感)이 진리의 열쇠인 것이다. 이러한 말은 분명히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이나 Morgagni 이후에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때는 이미 Bologna의 현명한 노교수로 과학적 업적만이 아니라 성격의 고결함에도 존경을 받고 있었고, 60년간 Vesalius와 같이 성급하게 야심적 투쟁에 뛰어들지도 않고, Harvey와 같이 충격적이며 신경질적인 활력의 소유자도 아니었다. 그는 대단히 정서가 안정되어 있었고 대인관계도 부드러워 신뢰가 가는 고결한 인품이었다. 또 하나의 미덕은 인내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주장을 논파(論破) 불가능하도록 완벽히 증명이 될 때까지 출판을 연장하여 1761년 ‘*De sedibus*’가 간행되었을 때는 그의 나이 79세였다.

‘*De sedibus*’는 70통의 편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모두 Morgagni가 연구하는 도중에 알게 된 과학 특히 의학 연구에 열심인 사람이라고 말한 젊은이들을 상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Bonetus가 의사 470명의 협조로 3,000의 부검례를 모아 임상경과에 부검의 보고와 해설을 대조해 가며 편지한 1,700페이지에 달하는 ‘해부소견집(*Spulchretum*)’을 본따 그들이 모은 사례와 소견을 써서 보내도록 의뢰하였다. 1741년 59세의 중견교수가 그 무명의 젊은 의학자들에게 주의 깊은 분석을 계속해서 보내고 모아 결국은 1. 두부의 병 2. 흉부의 병 3. 복부의 병 4. 외상과 전신적 질환 5. 보유 등으로 분류하여 5권으로 하고 참조에 편이를 생각하여 색인을 붙이었다. 이 다섯 권을 각 권마다 외국의 지도적 의사(독일인 2명, 프랑스인 1명, 영국인 1명하고 러시아인 1명)에게 봉정하고 있다.

70통의 편지에는 부검소견과 관련이 되는 병력을 기재하고 다른 서적이거나 역사적 배경도 적절히 참조하고 있으며 때로는 병의 경과를 해명하기 위해 저자가 실행한 실험의 기술에 의하여 의론을 해 나간 것도 있다. 이렇게 저술한 ‘*De sedibus*’의 목적은 임상의가 환자의 해부된 신체 안에서 증상을 발견하기 쉽게 지침을 제공하는데 있었다.

문체는 부드럽고 회화체로 되어 있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교사로부터 그 경험과 견식을 듣고 있는 것 같은 감을 주며, 어느 사례든간에 분석이 점차 자연히 전개되게 하고 있다. 역사적 배경이 설명되어 있고 당시 고찰방법의 진보를 논평하고, 권위자의 견해를 인용 검토하여 저자 결론의 논리적 전개가 점점 분명해지게 되어 있다. 이 책의 나전어 원문에 대한 주역자들은 병력을 기록한 문장의 뛰어남에 놀라고 있는데 이는 세심한 주의를 하면서 썼기 때문에 환자가 느끼고 주치의가 본 것과 같은 증상을

다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할 정도이다.

Morgagni는 독자에게 부검의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참고문헌을 인용하여 보여주는 것이 모두 한 사람의 독자에게 직접 말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젊은 학자나 헌사를 봉정한 외국 의사와 같이 독자를 초심자가 아니라 성숙한 의사로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한 젊은 학자가 개개의 독자에게 직접 가르치고 배우는 것과 같이 되어 있다.

**한 사람의 독자에게 직접 말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젊은 학자나 헌사를 봉정한 외국 의사와 같이 독자를 초심자가 아니라  
성숙한 의사로서 취급……………**

이상과 같이 'De sedibus'는 저자의 최초 의도보다 훨씬 훌륭한 것이 되었다. '해부소견집'의 개정을 시도한 것이 임상의학의 방대한 '자료집'으로 성장하고 더 이상없는 계통이 선 방법으로 편집되었으므로 모든 증례와 부검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색인에 의하여 참조가 매우 용이하게 되어 있다. 첫번째의 색인은 독자가 임상상의 증상과 병의 병리적 자료를 찾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부검소견으로 그것에 상응하는 생전의 증상이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를 찾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세번째의 색인은 각 편지의 주제와 그 내용을 표로 해서 열거하고 마지막 색인은 '특히 주의해야 할 인명과 그의 일절'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다. 이들 색인은 Morgagni의 자료집 catalogue 역할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모든 제목을 그자리에서 쉽게 참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색인에 대하여 Morgagni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내과 의사가 어떤 증상을 환자에서 보고 그것에 상응하는 체내의 손상부를 알고 싶을 때나 해부의가 인체해부에서 어떠한 병적 소견을 얻고 다른 신체에서 이러한 종류의 손상에 선행한 증상을 알고자 할 때는 내과 의사는 제 1의 색인을, 해부 의사는 제 2의 색인에 의해 바로 원하는 소견을 찾아 낼 수 있다”

'De sedibus'는 병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전연 새로운 기초를 제시하고 있다. 인체는 완전히 조화되어 움직이는 연휴(連携)한 물리적 기계적 요소에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들 요소는 기관이고 이 기관의 집합을 계통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병의 원인은 기계의 일부분의 고장으로 보게 되고 죽은 후의 해부는 고장난 장소를 찾아내는데 있고 앓은 기관이 생전에 환자의 증상은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되었다. 즉 Ubi est morbis ; 병은 어디에 있는가?의 대답을 확실하게 제시하는 방법을 남겨 놓은 셈이다.

'De sedibus'의 저자 위대하고 고결한 Giovanni Morgagni도 1770년 9월 2일 사랑으로 맺어 평생을 같이 하던 애처 Paola와의 끈이 죽으므로 끊어져 혼자 남아 은사 Valsalva와 그의 스승 Malpighi와 같은 뇌졸중으로 1771년 12월 6일 그가 오래 가족과 같이 살던 성 Massimo 거리 3003번지 자택에서 89세로 영면하였다.